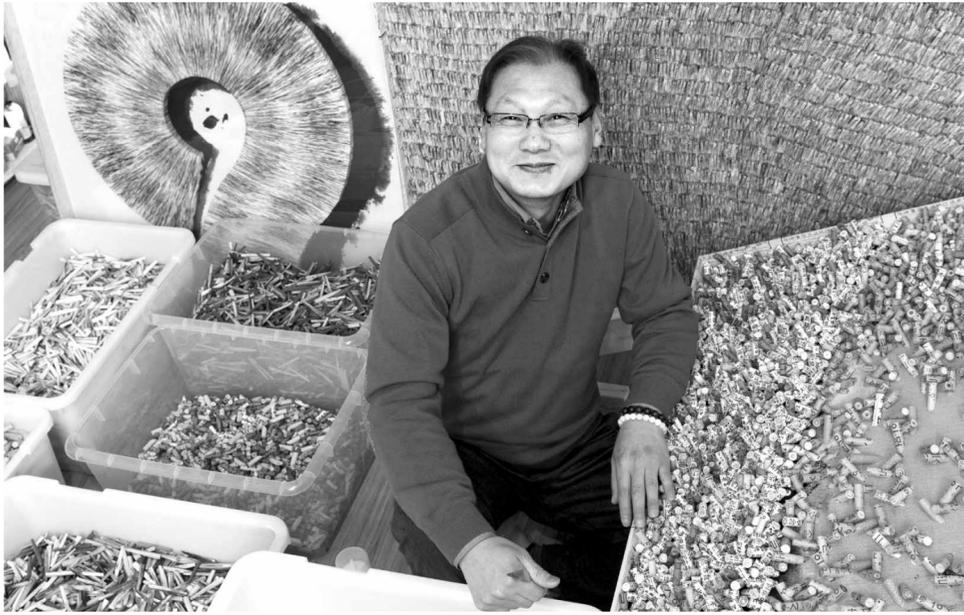


“한지붕으로 그린 그림...동양철학은 내 작품의 에너지”

컬처 & 피플

한지조형작가 서정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운정가우타운. 한 건물의 2층 작업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다란 상자가 빼곡히 작업실에 들어차 있었다. 상자에는 작업재료가 가득 들어 있었다. 내용물은 서예원에서 폐지로 나온 한지를 분필만한 두께로 돌돌 말아 다양한 크기로 잘라놓은 것들이었다. 한지 조형작가 서정민(52)씨가 붓대신 그림을 그리는 재료로 사용하는 한지봉(韓紙糊)이다.

장흥에서 태어나 여수에서 활동하다 경기도에 터를 잡은 서정민 작가의 별명은 ‘솔드 아웃(Sold out) 아티스트’. 그는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한국 평면회화 작가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화제의 인물 이 됐다.

지난해 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인전을 연데 이어 9월에는 마케도니아의 오스텐뮤지엄 비엔날레에 참여해 골든어워드 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스위스 바젤에 있는 안코센 갤러리와 터키 이스탄불 리아트 갤러리 전속작가다. 올해 해외 초대전만도 3곳에 출품했고, 지난 2월 싱가포르 아트스테이지를 비롯해 독일 아트칼스루에 아트페어 등 졸업작 10개 아트페어에 작품을 선보였다.

그의 작업에서 두드러진 점은 재료가 독특하다는 데 있다. 재료로 쓰는 한지는 서예원에서 글씨를 쓰고 버려진 폐지다. 작업실 인근 서예원에서 이를 수집한다. 이 종이를 작업과 이를 다시 튜브처럼 마는 고통스런 수작업을 한다.

“서예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한지에 쓴 글은 동양사상을 함축한 명문들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버려지잖아요. 저의 작업은 이런 종이를 모아 글을 쓴 사람들의 정신과 에너

서예원서 한지 모아 캔버스에 붙여 새 조형 30여 아트페어서 러브콜 해외시장 한국미술 알려

지, 동양철학의 에너지를 집약시켜 화폭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한지봉을 직선이나 사선으로 잘라 한지의 평면에 쓰여졌던 붓글씨를 나무의 나이테, 혹은 잔잔한 파문 같은 형태로 빚어낸다. 이를 캔버스에 붙여 조형과 회화성, 두 개의 느낌을 가진 작품을 만든다. 작품들은 때로 얇은 나무들을 겹겹이 쌓아올린 덩어리, 물감으로 치자면 거칠고 두터운 마티에르를 내는 화폭을 만들어낸다.

“한지봉을 절단하면 자연스럽게 무늬와 결이 생기잖아요. 글씨들이 없어지고 동양의 선이 나오죠. 붓이나 연필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지봉의 절단면에서 자연스런 선이 생성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연의 법칙, 동양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제 모든 작품의 주제는 동양사상의 응집, 덩어리입니다. 무위자연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모든 것이 태어나서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 음양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서 작가는 해외진출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해 부단하고 치밀하게 노력했다. 다른 점은 치밀함과 끈기로 끊임없이 자신의 작업을 반추하고, 남들과 다른 조형언어를 찾았다는 것이다. 화가로서 자신의 동지였던 유희도 과감히 버렸고, 색감도 포기했다.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던 그는 다양한 오

브제들을 사용하고 치열하게 실험했다.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 서예원에서 구한 한지를 물에 적시기도 하고, 찢어서 붙여보기도, 심지어 믹서기에 넣고 갈아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에게 한지가 가슴으로 들어왔다. 돌돌 말려진 한지의 끝 부분에서 색다른 선(線)이 보인 것이다. 무릎을 쳤다. 서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인 한지봉이 만들어낸 계기다.

조심스럽게 해외진출을 모색하던 그는 지난 2009년 해외 아트페어의 문을 두드렸다. 이스탄불 아트페어에서는 무명 작가였음에도 출품작 6점 가운데 4개나 팔렸다. 이것이 계기가 돼 지금까지 무려 30여개 아트페어에서 ‘러브콜’을 받는 작가가 됐다. 경기도에 있는 그의 작업실을 찾는 해외 콜렉터들이 생길 정도. 그가 경험으로 들려주는 해외시장 개척의 비결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회화의 역사가 100년을 넘겼음에도 아직 우리나라 미술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미술사에서 의미있는 ‘우리미술’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한국적인 것, 한국사람들의 고유한 정서를 찾아내 작품화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뤄진다면 우리미술을 세계화단에 각인하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파주=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재단,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장 백수인)과 광주 북구청(정장 송광운)은 1~29일 매주 수요일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강당에서 ‘문화, 인권, 삶 그리고 광주정신’을 주제로 제8기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을 개최한다.

이번 시민대학은 호남학, 임란의 병, 동학혁명,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광주정신의 참담을 이해하고 ‘문화도시 광주’에 부합하는 삶의 자세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1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첫 강좌에서는 정동채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정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강유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10월8일), 김정호 향토사학자의 ‘호남인물과 광주정신’(10월15일), 홍성담 화가의 ‘예술과 광주정신’(10월22일) 강좌가 진행된다. 오는 10월29일에는 ‘정여립 역사기행’을 주제로 김재 일원으로 답사를 떠난다. 문의 062-234-2727.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아름다운 우리글 서예의 화려한 외출

2~8일 광주 메트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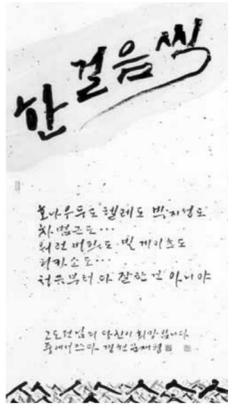
한국과 중국 서예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무등한글서예연구회(회장 문재평)와 연변문자예술협회(회장 서영근)는 2~8일 메트로갤러리에서 ‘아름다운 우리글 서예의 화려한 외출’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두 협회가 1998년부터 한중문화교류 및 한글서예발전을 위해 16회째 개최하는 순수 한글서예교류전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은은한 묵향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자리로, 앞서 지난 8월 중국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양국 작가들이 궁체, 판본체, 민체와 청봉체, 간도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힘있게 써내려간 작품에서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읽을 수 있다.

전시에는 학정 이돈홍 선생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들을 비롯해 모두 30여명의 광주 회원들이 참여한



다. 또 연변문화예술협회 회원 20여명과 학생 20여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문의 062-264-337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김승옥 문학상’에 소설가 박솔피

수상작 ‘그럼 무얼 부르지’

소설가 박솔피(사진)가 ‘그럼 무얼 부르지’(지음과 모음)로 제2회 김승옥문학상(상금 30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솔피는 지난 2009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왔으며 작품으로 장편소설 ‘울’과 ‘백 행을 쓰고 싶다’가 있다. 올해 제4회 문자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승옥 문학상은 ‘전후문학의 기적’, ‘60년대 김수성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소설가 김승옥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기성작가에게 주는



본상과 별도로 신인상 대상에 방우리 씨와 미래작가상 대상에 이나라(안양예고 3)양을 선정했다. 단체상은 5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안양예고에 돌아갔다. 이번 공모에는 소설 560 편 등 총 3200여 편이 응모해 문학 지망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순천 건강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문의 010-8594-6614.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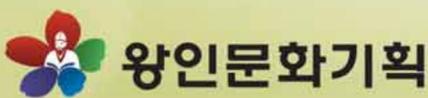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